

문 대통령, 조국 임명...정국 '시계제로'

대국민담화 통해 배경 직접 설명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겨
야권, 특검·국정조사 추진 반발
내년 총선까지 극한 대치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조 신임 법무부 장관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관련기사 3·4면

그동안 조 장관 낙마에 당력을 쏟았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즉각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는 등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게 됐으며,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정국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조 후보자 임명 사실을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 장관 이외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도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 배경을 설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만큼 임명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임명될 경우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야권에서는 당장 특검과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재가가 발표된 직후 야권 지도부에 유선으로 대어 투쟁을 함께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 바른미래당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민주평화당은 “상식 밖의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각각 논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을 환영하고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로 얼어붙은 정국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

광주·전남 수능 응시자 3천520명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재학생 '뚝' 졸업생·검정고시 지원자는 증가

오는 11월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에 전국적으로 54만8천700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3만4천55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2019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와 비교하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광주·전남을 포함 전국적으로 재학생이 크게 줄었다. 반면 졸업생·검정고시 출신 수능 지원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54만8천734명이 지

원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4만6천190명(7.8%)이 줄었다. 고등학교 재학생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5만4천87명 감소한 39만4천24명(71.8%), 재수생 등 졸업생은 6천789명 증가한 14만2천271명(5%),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천108명 증가한 1만2천439명(2.3%)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도 지난해보다 3천520여명이나 감소했다. 광주지역 수능 응시자는 1만8천563명으로, 지난해(2만350명)에 비해 1천787명(8.8%) 감소했다. 전남은 1만5천993명이 지원해 지난해(1만7천730명)보다 1천737명(9.8%) 줄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전국 평균 감소율(7.8%)을 웃돌았다.

광주·전남 모두 지난해보다 3천520명 줄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4만6천190명(7.8%)이 줄었다. 고등학교 재학생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5만4천87명 감소한 39만4천24명(71.8%), 재수생 등 졸업생은 6천789명 증가한 14만2천271명(5%),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천108명 증가한 1만2천439명(2.3%)으로 나타났다.

응시자의 78.7%)으로 전년보다 2천19명 줄어든 반면 졸업생은 182명 증가한 3천504명(1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50명 증가한 454명(2.4%)으로 집계됐다.

전남 역시 재학생은 1천891명 감소한 1만3천758명(86.0%)인 반면 졸업생은 130명 증가한 1천957명(12.2%),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4명 증가한 278명(1.7%)으로 집계됐다.

선택과목은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수학 영역의 경우 광주와 전남 모두 가형 보다 나형이 60%대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탐구 과목에서는 광주·전남 모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40%대 중·후반을 차지한 반면 직업탐구는 1%대에 그쳤다. 뉴스

“광주형일자리 사업 지역사회 힘 모아야”

이용섭 시장, 대표이사 관련 입장 밝혀

“갈등 지속되면 연내 착공 어려워”
광주경총·투자자 “법인 설립 시급”

대표이사 선임 논란으로 광주형일자리 법인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절차나 자격요건, 투자자들 우려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절차적으로 보면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그러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주가 결정한다”며 “그동안 현대차 고위임원 출신,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출신, 노사정 위원장 출신, 지역전문 행정가 출신 등을 놓고 주요 주주간 협의를 거쳐 박 전 시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사 선임 관련해 지역사회가 더 분열하고 갈등해서 법인등기가 늦어지면 하반기 공장 착공에 어려움이 있고 2021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며 “이런 점들은 주주들과 시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잘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대표이사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찬반여론과 함께 갈등을 빚고 있어 법인설립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일자리가 좋은 성과를 보이면 다른 산업분야로 확산돼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가 될 것이다”며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공장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전남 주주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련의 대표이사 선임 반대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조기설립을 촉구하는 광주·전남지역 주주들이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